

대구주보

연중 제33주일 (평신도 주일)

2014. 11. 16. (가해) 제1917호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정평성당
사진_홍창익 비오 쉼부

† 오늘의 전례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마태 25,14-30 참조)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재산 가운데 가장 작은 몫이 한 탈렌트였습니다. 은 한 탈렌트는 노동자의 17년간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금화였다면 무려 247년분의 임금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큰 일인데, 우리에게 이 일을 거들도록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할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제1독서 잠언 31,10-13,19-20,30-31 **제2독서** 1테살 5,1-6 **복음** 마태 25,14-30

입당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착하고 성실한 종

김두찬 세례자요한 신부 | 용계본당 주임

교우 여러분!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5장 5-6절의 말씀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 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사명을 부여하시고 축복하시어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오늘은 연중33주일, 1968년부터 정해져서 기념하기 시작한 평신도주일입니다. 평신도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역할을 크게 부각하면서 평신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는 이러한 공의회 정신에 따라 평신도의 사명에 관하여,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 5조에 “모든 신자는 세례와 견진성사로 사도직 사명을 부여 받는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 신자에게 이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 (1코린 12,7,11). 그러므로 각 신자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구원 소식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기 고유한 조건에 따라 현세의 질서를 복음정신으로 비추어줌으로써 교회의 성장과 사회의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평신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교회를 성장시키는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2011년 5월 15일(주일) 교구 100주년 감사미사 때 교구민들이 다짐한 그 내용을 상기해 봅니다.

하나. 선조 신앙인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복음을 실천한다.

하나. 청소년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교회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를 구현한다.

하나. 교구 100주년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등을 외치며 새로운 100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교구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교구민들이 한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외쳤던 다짐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려주는 탈렌트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총의 선물을 기쁘게 활용하여 하느님 나라 복음 선포에 앞장을 서는 평신도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25, 21,23.)”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평신도는 복음정신에 따라 교회의 성장과 사회의 성화를 위하여 선택받았으니, 주님 앞에 착하고 성실한 종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축복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빕니다.

제47차 평신도 주일 특집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별도로 평신도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대구대교구에서는 81개 평신도 단체의 협의체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를 통하여 평신도의 신앙 활동을 촉진하여 왔는데, 2013년 9월부터 교구 사목평의회에 평신도위원회를 신설하여 교구장 대주교님께서 평신도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사목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 선조를 둔 자랑스러운 평신도들입니다. 지난여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서울 광화문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의 시복식을 거행하셨습니다. 103위 성인 가운데 93위, 124위 새 복자 가운데는 123위가 평신도입니다. 신앙선조들과 같은 자랑스러운 평신도로서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느님께 받은 소명에 기쁘게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실천합시다. 우리는 교황님의 방한 기간 내내 큰 행복과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평화와 일치의 희망을 보여주셨고 고통 받는 이들을 격려하셨으며 젊은 이들과,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시면서 복음적 삶의 실천을 보여 주셨습니다. 교황님의 선물이 우리 사회에 두루 퍼지도록 우리가 그 뜻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2015년 교구장 대주교님의 사목지침인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내년에는 교구장님의 지침에 따라 소외

된 이들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찾고 섬기는데 우리 평신도들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소외된 이들에 대한 교회의 배려는 주님에 대한 신앙 행위이며,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평신도 사도로서 가정성화에 노력합시다. 오늘날 경쟁과 이기주의의 만연 가운데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신앙교육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자녀들에 대한 교리교사이자 신앙의 선배로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며 신앙교육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하게 하느님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복음의 기쁨'을 누립시다. 교황님께서서는 평신도인 우리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끊임없는 물질주의 유혹과 이기주의적 무한 경쟁 풍조에 맞서 싸울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교황님의 염원을 따라 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기꺼운 마음으로 져야 하겠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향해 나아갑시다.

2014년 11월 16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평신도위원회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김요한 세례자요한 신부 | 매호본당 보좌

2005년 신학교 학부 3학년 때, 영성담당 신부님께 면담을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 때 텔레비전에 황우석 박사가 나오고 있었는데 언론은 그가 연구하는 줄기세포를 찬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윤리 신학을 전공하신 신부님은 “저러면 안 될 텐데...”하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점차적으로 황우석 박사의 연구는 거짓임이 만천하에 알려지고, 9년이 지난 올해 8월 서울고등법원은 황우석 박사에게 파면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제보자』(임순례 감독, 2014. 10. 2. 개봉)는 진실이 밝혀지는 그 과정을 담백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난치병 치료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많은 이들의 지지와 언론의 찬사를 받았지만,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난자를 사들이고 비윤리적인 실험을 지속했던 한 사람의 결말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당시 황 박사의 연구가 잘못된 것임을 제보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 그 사람의 인터뷰가 외국잡지 『네이처』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압력을 받고서 6개월간 그 일가족이 숨어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실과 진리보다 허황된 거품에 좌우되는지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줄기세포 조작 사건입니다. 올바른 소리, 진실의 자리는 묻히고 힘센 사람, 가진 사람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피

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즈카르야의 피에 이르기까지의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루카 11,51)” 아벨의 죽음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의인의 첫 죽음(창세 4,8-10)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반대하다 요아스 임금의 명으로 죽은 즈카르야의 죽음은 구약성경 의인의 마지막 죽음(2역대 24,20-22)입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에 나오는 의인들의 모든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이어 당신도 그러한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성공, 기적, 승리에 도취된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이들도 막아버리는”(루카 11,52)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보입니다. 하느님의 질서를 벗어난 사람은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합니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정작 당신이 피를 흘려 그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질서 안에 머물도록 합시다. 바오로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에페 1,7)” 이를 믿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루를 선물 받았다면 우리도 내 이웃에게 작은 희생을 선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필요**



평생의 동반자



대학원의 한 노교수가 수업이 끝날 무렵에 결혼한 여학생에게 좋아하는 사람 20명의 이름을 칠판에 써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은 가족, 친구, 회사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학생이 이름을 다 적자, 교수는 학생에게 그 20명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를 지우라 했습니다. 학생이 한 명의 이름을 지우자 교수가 또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하나 지우게나.” 학생은 교수의 요구에 따라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지우고, 결국 칠판에는 부모님과 남편, 자녀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강의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다시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로 중요치 않은 사람 이름을 다시 지워 보게.”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다시 한 명!” 그녀가 자신을 낳은 어머니의 이름을 지우자 또다시 “한 명을 더 지워 보게.” 한동안 멍하니 있던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지우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눈물을 그친 학생에게 교수가 물었습니다.

“자네를 낳아 준 부모와 자네가 낳은 자식을 왜 지웠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마음만 먹으면 다시 구할 수 있는 남편을 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남겼는가?”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께서서는 먼저 돌아가실 것이고, 아이는 다 자라면 품을 떠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평생 저에게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꽃**

금주의 성인

11월 16일	복자 그라시아(수사, 카타로, 1508년), 성녀 마르가리타(왕비, 스코틀랜드, 1046-1093년) 성 아판(주교, 웨일스, 6세기경), 성 에드문도 리치(대주교, 증거자, 캔터베리, 1180-1240년) 성 에우케리오(주교, 리옹, 449년), 성녀 제르트루다(수녀, 신비가, 저술가, 헬프타, 1256-1302년)
11월 17일	성 그레고리오(주교, 선교사, 기적자, 네오카이사레아, 213-270년), 성녀 빅토리아(순교자, 4세기경) 성 아니아노(주교, 오를레앙, 453년), 성 알패오(독서자, 순교자, 303년) 성녀 엘리사벳(왕비, 헝가리, 1207-1231년), 성 자캐오(부제, 순교자, 303년) 성녀 힐다(수녀원장, 휘트비, 614-680년), 성 트리폰(동정 순교자)
11월 18일	성 로마노(부제, 순교자, 안티오키아, 304년), 성 오도(수도원장, 클뤼니, 879-942년) 성녀 로사 필리피나 뒤센(수녀원장, 선교사, 1769-1852년)
11월 19일	성 바를라암(순교자, 4세기), 성녀 에르멘부르가(왕비, 수녀원장, 민스터, 700년) 성 크리스피노(주교, 순교자, 에키자, 4세기)
11월 20일	성 다시오(순교자, 도로스토룸, 303년), 성녀 막센시아(동정 순교자, 보베) 성 베니노(주교, 밀라노, 447년), 성 베른바르도(주교, 힐데스하임, 960-1022년) 성 에드문도(왕, 순교자, 이스트앵글리아, 841-870년), 성 펠릭스(신부, 설립자, 발루아, 1127-1212년)
11월 21일	성 젤라시오 1세(교황, 496년)
11월 22일	성녀 아피아(바오로의 제자, 순교자, 1세기경), 성녀 체칠리아(동정 순교자, 230년) 성 프라그마시오(주교, 오텩, 520년), 성 팔레몬(바오로의 제자, 순교자, 1세기경)



■ 하양성당 견진성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1월 2일(일) 오전 11시 하양성당에서 133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셨다.

■ 제18회 한국가톨릭학술상 시상식



대주교님께서는 11월 6일(목) 오후 5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제18회 한국가톨릭학술상 시상식에 참석하셨다.

기사 및 사진제공: 가톨릭신문사

대구대교구민을 위한 신앙생활의 든든한 동반자!

2015년 신앙다이어리 출시

지난 해 첫 선을 보여 큰 호응을 얻은
신앙다이어리의 2015년도 판을 출시합니다.

판매가: 10,000원

선주문 예약판매: 예약기간 내 선주문 시 10% 할인(9,000원)

예약기간: 2014년 11월 3일~11월 21일

예약주문 및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7~9

판매처: 교구 문화홍보실, 계산서원, 성바오로서원, 성바오로딸서원, 바티카노,
삼덕성당 임마쿨라다 성물방



각자 각오를 새롭게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11월 17일(월) 11:00 계산성당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1월 17일(월) 10:30 범여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7일(월) 11:00 한티순례자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7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20일(목) 10:00 평화성당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11.22(토) 14:00

장소: 예수회 관구본부(서강대학교 옆)

주제: 서원의 삶: 가난, 정결, 순명

문의: (010)6483-4008

<http://cafe.daum.net/vocsj>

앗숨(Ad sum) 기도 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19:3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대구)

대상: 미혼 여성 누구나

신청: (010)2649-2045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현시, 미사, 안수)

일시: 11.19(수) 13:00~16:30

12.17(수) 13:00~16:30

지도: 강 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25차: 11.21(금)~23(일)

326차: 12.5(금)~7(일)

장소: 한티 / 문의: 대구ME, 983-0521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11.21(금)~23(일)

장소: 성심교육관, 출발: 시민회관 16:00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명자 카타리나, (010)4515-1114

성심수녀회 청년 피정

기간: 11.22(토)~23(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010)9284-0304

바틀로교육센터 1일 피정(무료)

일시: 11.25(화) 10:00~16:00

대상: 신자 누구나

신청: 783-9817 / (010)3360-9817

110차 선택 주말

기간: 12.12(금)~14(일), 꾸르살료교육관

대상: 미혼남녀신자, 예비자 / 선착순 50명

문의: 김효나 아녜스, (010)3521-0102

<http://cafe.daum.net/daeguchoice>

최봉도 신부 지도 희망 기도 피정

기간: 12.18(목) 14:00~21(일) 12:00

장소: 의정부 민족화해센터

신청-문의: 전선자, (010)6254-0057

평창 성필립보생태마을 겨울 에코 피정

기간: 1기 1.5~7 → 8기 1.29~31

매주 월~수, 목~토 (2박 3일)

주제: 지구 온난화 / 1인 9만 원(6식)

대상: 초·중·고 주일학교, 복사단

문의: (033)333-8066

수도자들과 함께 하는 성탄 전례 피정

기간: 12.23(화) 16:00~25(목) 13:30

장소: 성베네딕도왜관피정의집 / 14만 원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54)971-0722, 입금 후 연락

교육 | 모집

대림 성탄 전례음악 세미나

일시: 11.23(일) 14:00~17:00

장소: 남산동 대신학교 강당

대상: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

주최: 가톨릭음악인협회

문의: (010)8996-8675

대학생 필리핀 영어연수 및 해외봉사

대학생: 1차 1.3 / 2차 2.28(8주 이상)

초·중·고 캠프: 1.2~1.30(4주) 선착순

특징: 영어연수, 해외봉사활동, 체험활동

캐나다, 호주연계연수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히말라야랑탕안나푸르나 트레킹

일시: 2015.5.4(월) 11박 12일

주최: 한국가톨릭문화원(산행방)

문의: (010)4711-8188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하다 교육생 하다 취업률
하다 연속합격률

▶ 요양원 · 방문요양 부설운영

사랑요양보호사교육원
대 구 053)791-7677
경 산 053)813-7343

매월 불입액이 없는
가톨릭상조

220만, 270만 상품중 선택

24시간 상담전화 **1577-3182**

장례대행/장지분양/묘지이정/묘지조성
장례부장 서경철(라파엘) 010-7799-7836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본도의 한방을 기를이
내일을 만드는
기적의 에너지가 됩니다!

(주)본도 국복을저하는사람들
본도의원/주요소

전화 한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53)623-4600, 656-2500
대표 김 현 철 (베네딕도)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 (안젤로)
송 정 애 (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성요셉요양병원
(구. 논공가톨릭병원)

매일미사, 상시고해·병자성사, 봉성체, 병실순회 기도
치매·중풍·노인성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24시간 전문간병인·의사·간호사 상주 진료
친환경적 병실 운영, 양·한방 협진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반역기(바오로) 011-514-3855

참소중한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피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행사 | 모임

제6회 교구 성경 암송 발표대회

일시: 11.22(토) 14: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칠곡, 평화의 누릿길(예술과 함께하는 토요여정: 작은음악회 등)

출발: 11.22 / 11.29 / 12.6

9:00 계산상당, 버스이동 / 2만 원(중식제공)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가실당 외

문의: 칠곡군/대구PBC, 251-2610

전례꽃꽂이 월례회

일시: 11.17(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좌반 수료 전시회: 11.19(수)~21(금)

교육 | 모집

틴스타(청소년 성교육) 워크숍

기간: 2015.1.13(화)~16(금) 9: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성교육에 관심과 봉사에 뜻이 있으신 분

신청비: 18만 원

문의: 봉사자, (010)9544-1838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통기타, 플룻, 우쿨렐레, 바이올린, 오카리나,
POP, 초코아트, 톨페인팅 (성인 및 어린이)

문의: 476-6211

종독자 및 가족상담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기간: 12.2(화)까지

대상: 사회복지 및 심리전공자

문의: 대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38-3778, 8778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채용 | 안내

2015년 헌포안드레아유치원 교사 채용

모집분야: 유치원 정담임 및 부담임

문의: (010)9922-7952

사회복지회, 생명사랑, 나눔운동본부

각 본당에 설치된 헌포수거함에 옷, 가전,
기타 등을 넣어서 사랑을 전해주세요. 해
외난민지원사업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니 많은 도움.참여부탁드립니다.

문의: 555-4846 / (010)9413-1145

성탄 위문품 신청

군중후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 군위문품을
보낼예정이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11.26(수), 접수: 본당 사무실

대상: 신자자녀 현역사병(의경, 전경포함)

※ 훈련병, 교육병, 부사관, 장교 제외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도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교구 법원 공시(253-9550)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수봉

2015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2015년도 대구주보에 게재될 광고는 순번추첨방식을 통해 접수되며
기존 1, 2차 순번추첨 외 위임신청제를 도입합니다. (대기 번호표는 없음)

- 사전서류접수 기간: 11.10(월)~20(목),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 1차 순번추첨 일시: 11.24(월) 9: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 2차 순번추첨 일시: 11.24(월) 13:00 (당일에 서류를 제출하신 업체 대상)

제출서류: 1. 교적 사본 2. 본당신부님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광고 문안 5. 사회복지 관련 사업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님 추천서

광고비는 전액 계좌이체로만 받습니다. (접수일부터 익일까지)

사업주가 냉담자이거나 신자들의 유익을 해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임신청제란?

접수 당일 광고주들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 제출 후

광고 자리 배정을 문화홍보실에 일임하는 제도로 접수 당일 광고 신청 배정

후 남은 자리에 배정됩니다.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9)

“겨울방학 특집 가족캠프”
일본 성지순례 문화탐방
나가사키, 운젠, 구마모토, 야소 (4일)
※ 출발일 - 12월 17일, 1월 5일, 21일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 철 레(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검색 김민지(사바나)

국내 최초 「아픈증세 상담하고 좋은의사 소개하는」
LDK 의원
원장 병리전문의 이종구 (마티아) Tel. (053)755-7775
부원장 내과 4번 출구 전 대구의료원 원장 Tel. (053)761-8888
www.ldkclinic.com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출혈/성장(식욕부진·수면장애)/아토피/아노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 사 김 성 철(비오)
동국대학의학과 외래교수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에너타워 4F

해아림한의원
소아클리닉 - 틱, ADHD, 아노
마음클리닉 - 공황, 불안, 불면
원장 김 대 익(안드레아)
예약 : (053)751-0071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승원학원옆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탈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두번째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apple 애플피부과
피부질환에서 피부미용까지
당신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원장 현 동 녁(까롤로), 정 홍 대
☎ 053)761-8888
범어동 애플타워 9층 (그랜드호텔 옆)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